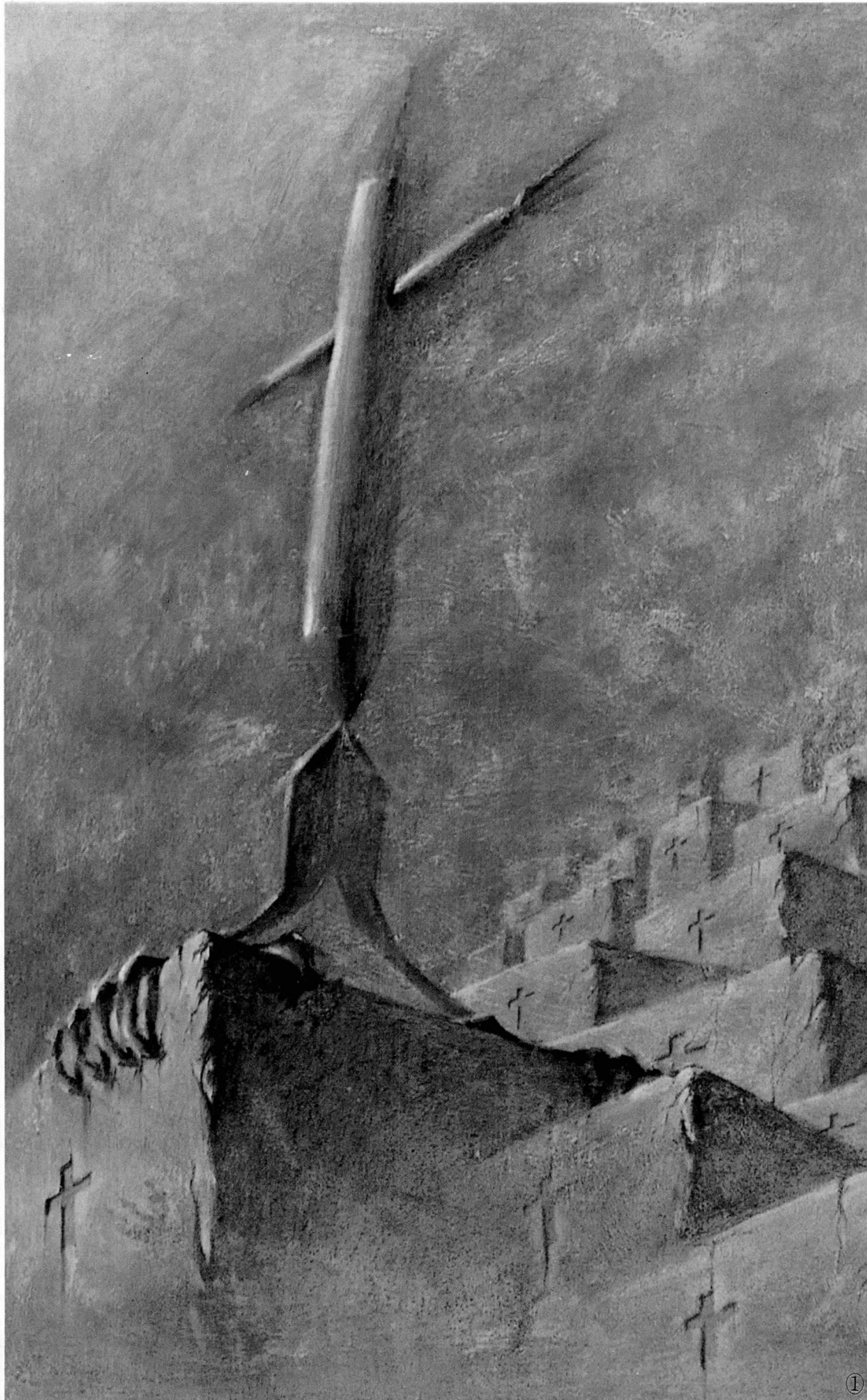


# 새봄 맞아 펼쳐진 일러스트 큰잔치

출판미술가협회 주최 '한국출판미술대전 1994' 시상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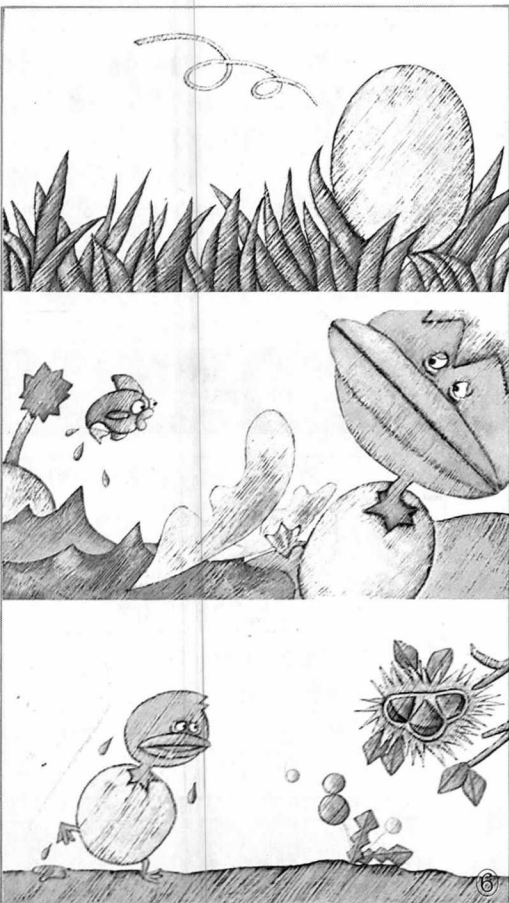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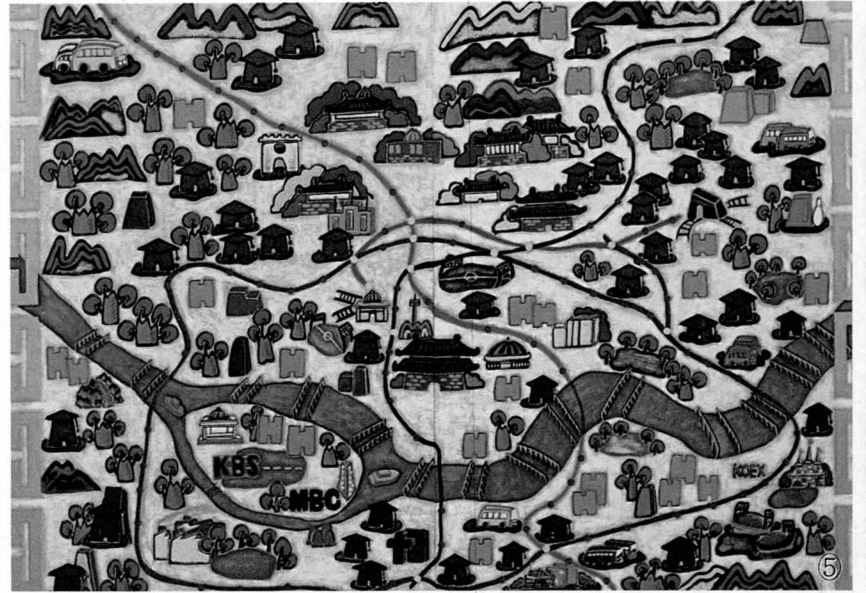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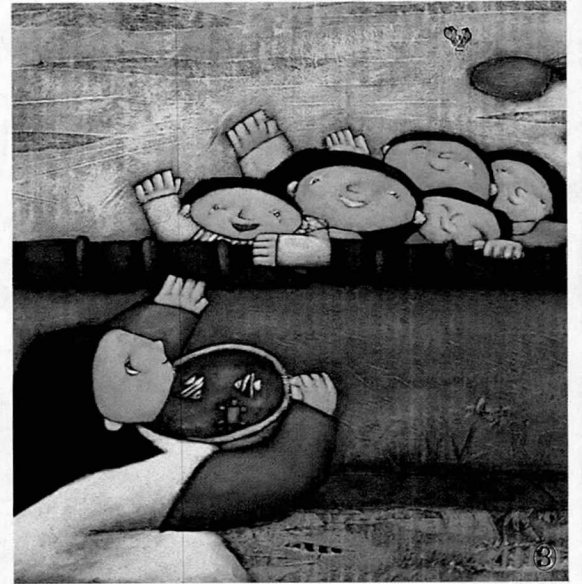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복디자인 등 출판미술 분야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출판미술가협회(회장 강우현) 주최 '한국출판미술대전 1994'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162점에 달하는 회원작품을 비롯해 2~3세용 그림책을 위한 '두살바기상', 4~6세용 그림책을 위한 '황금도깨비상', 멀티미디어시대의 캐릭터 개발을 위한 '컴퓨터그림상' 등의 입상작품들이 전시됐는데, 그밖에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서울600년 그림상', 작품 소장을 유도하기 위한 '1호그림 특별전' 등의 출품작들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시상전시를 통해 이번 전시회의 면면을 스케치한다.


- ① 이경국의 시사간행물 대상 수상작
- ② 김순금의 「빨간 풍선과 개미」
- ③ 김세온의 황금도깨비 대상작 「이사가는 날」
- ④ 토이북 코너에서 책을 뒤적이는 아이들
- ⑤ 안성수의 서울 정도600년 우수상
- ⑥ 장선희의 「오리」
- ⑦ 김소연의 「해 달별」
- ⑧ 신승윤의 출판미술가협회 회장상 수상작.






  
 초저녁 파랗은 한나한테  
 양미가 꿈이 있을 겁니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꿈과 양미가 있을 겁니다.  
 모든 꿈과 양미가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올랐습니다.

  
 이별 꿈으로 돌아갑니다.  
 달님도 없고 양미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무는 노름이 할아버지 되고 양미도  
 손에 잡힐 듯 할아버지 되고 양미도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올랐습니다.

  
 달님에 하얀이 날마다 세디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친구 친구도 되겠습니다 하고  
 모든 하얀이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내일 친구들에게 올랐습니다.

  
 내일이 올 때까지  
 모든 하얀이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모든 하얀이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올랐습니다.  
 내일 친구들에게 올랐습니다.

